

## 전남도, 민선8기 첫 추가경정예산 8천920억 원 증액

### 지역경제 활력 회복·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재원 배분 초점

전남도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예산 10조 470억 원보다 8천920억 원이 증가한 10조 9천390억 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지난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재원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6천109억 원, 보통교부세 1천287억 원, 2021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1천297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에 주안점을 뒀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반도체, 해상풍력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재

원을 투입, 전남 미래 100년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주요 분야별 편성내용은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810억 원 ▲고부가가치 농수축산업 육성에 2천170억 원 ▲인구감소 대응 및 행복전남 실현을 위해 990억 원 ▲전남문화·관광 융성시대 실현을 위해 440억 원 ▲재해복구 및 지방도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에 4천510억 원 등이다.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기초과학 연구 및 첨단산업의 총아로 평가받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연구용역에 6억 원을,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

는데 필요한 항만운송 인프라 확충에 40억 원을 편성했다.

좋은 일자리의 기반이 될 도내 기업유치를 위한 시설·입지보조금 6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조선업 수주 회복에 대응한 인력 수급문제 완화를 위해 이주 정착금 지원 등 6억 원을 긴급히 투입했다.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선 청년의 농장 경영 기회 제공과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76억 원을 편성했다.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상승으로 힘든 농어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유 인상분 지원사업을 10월까지 연장하고 (107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대응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

를 지원하는 사업비 395억 원을 반영했다.

경영위기에 처한 도내 버스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해 50억 원을 특별 지원하고,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을 위해 301억 원을 증액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도민 제일주의 행복전남 실현을 위해선, 인구감소 지역의 주거·보육·의료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전남청년문화센터, 청년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공산후조리원 등 지방소멸대응 기금 378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 대표 행복시책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예산을 5억 원 증액해 올해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도민도 지원 받도록 2025년까지 3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에 3억 원, 성수기와 평일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이용 지원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문화·관광 융성시대 실현과 전남관광 1억 명 시대 개막을 위해, 전남방문의 해 성공적 운영에 9억 원, 2023년 목포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 시설 건립에 6억 원을 증액했다.

2023년 순천만정원박람회 기반 조성 및 성공개최에 79억 원, 영호남 문화교류 및 상생화합을 위한 영호남화합대축전에 8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재해복구 및 지역사회 발전을 견

인할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선 지역사회의 관문이 될 지방도 정비사업에 318억 원을 증액했고, 장마철 재해 발생을 대비해 하천 퇴적토 준설과 위험지역 정비 예산 482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613억 원 등도 추가로 반영했다.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물가상승과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서용운기자

## 현대자동차, 이동 약자 이동권 증진 위한 운전 재할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글로벌 CSV 프로젝트 'Hyundai Continue(현대 컨티뉴)'의 일환으로 국립재활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운전 재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글로벌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프로젝트 'Hyundai Continue(현대 컨티뉴)'의 일환으로 국립재활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운전 재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각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상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운전 재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한 5사는 가상운전 시뮬레이터를 통해 운전평가와 훈련, 도로주행 연수 등 운전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재할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 약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현대차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노시뮬레이션과의 협업을 통해 가상운전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 가상운전 시뮬레이터에는 ▲신체 장애를 가진 이들 또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핸드컨트롤 보조장치, 엑셀 페달 보조장치 등 각종 운전 보조장치가 설치돼 있으며 ▲실제 중형 자동차 좌석에 4축 전동식 모션장치를 적용, 사용자에게 실차를 운전하는 것과 유사한 운전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가상운전 시뮬레이터에는 ▲도심주행, 고속도로주행, 야간주행, 국도주행, 주차장의 5개 상황을 상정한 총 20여 개의 체험 시나리오와 ▲조향력 확보가능 장치(ABS), 차체자세유지 장치(VDC), 자동 긴급제동 장치(AEB), 졸음·운전부주

의 경고장치(FCWS·LDWS) 등 4종의 안전기술 체험 시나리오가 탑재돼 다양한 운전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립재활원 관계자는 “실차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환자들이 안전하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상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며 “운전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며 모빌리티를 활용해 이동 약자의 이동권 향상과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Hyundai Continue' 프로젝트 아래 지역 사회와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문수기자

**함평 Hamgyeong**

**함평 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